

교회안내

■ 명칭 | 뉴욕예일장로교회

■ 표어 | 예수님 제일 (마 16: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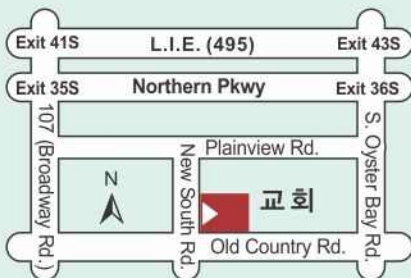
■ 실천목표

- ① 영감있는 예배
- ② 십자가 사랑의 교제
- ③ 땅끝까지 복음전파
- ④ 천국일꾼 훈련양성
- ⑤ 이민가정의 치료
- ⑥ 능력있는 기도생활

정기모임 안내

집회	시간	장소
주일 예배	1 부 예배 오전 7:30	본당
	2 부 예배 오전 9:00	본당
	3 부 예배 오전 11:00	본당
	영어 예배 오후 1:00	본당
	주일찬양예배 오후 2:30	본당
수요 예배	오후 8:3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본당
목장모임	오후 8:30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각 목장
제자훈련	화, 목요일 오후 8:30	교육관
새벽이슬회(청년)	금요일 오후 8:00	새벽이슬회실
주일학교	영아부(3세미만) 주일 오전 11:00	영아부 예배실
	유치부(3~5세) 주일 오전 11:00	유치부 예배실
	유년부(1~6학년) 주일 오전 11:00	유년부 예배실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실
	중고등부 금요모임 오후 7:30	중/고등부 예배실
SILVER CLUB	목요일 오전 10:00~오후 2:00	친교실
MOMMY & ME	금요일 오전 10:00~11:30	유치부 예배실
뉴욕예일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00~오후 12:00	교육관

교회 오시는 길



플러싱 방향에서 오시는 길

L.I.E.(495) Exit 43으로 나오셔서 신호등에서 우회전 또는 Northern State Pkwy Exit 36S로 나오시면 S. Oyster Bay Rd.로 연결됩니다. Old Country Rd.를 만나 우회전 하시면 우측편에 교회가 보입니다.

롱아일랜드 East 방향에서 오시는 길

L.I.E.(495) Exit 43으로 나오셔서 신호등에서 좌회전 또는 Northern State Pkwy Exit 36S로 나오시면 S. Oyster Bay Rd.로 연결됩니다. Old Country Rd.를 만나 우회전 하시면 우측편에 교회가 보입니다.



해외한인장로회

뉴욕예일장로교회

YALE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NEW YORK

“예수님 제일이신 교회”



담임목사 김종훈

Senior Pastor: Rev. Jong Hoon Kim, D.Min

17 New South Rd., Hicksville, NY 11801
Tel. (516)938-0383 (C) Fax (516)938-3824
www.yalechurch.org

Vision 2021 - 헬로십 마치

예 배 시 간	1부 오전 8:00	2부 오전 9:30	3부 오전 11:00
인 도 자	김종훈목사		
신 앙 고 백 Confession	다 같 이		
찬 송 Hymn	324장, 546장		
기 도 Prayer	홍정자목사	유학준장로	윤희주장로
성 경 봉 독 Scripture	민 11:18-23		신 8:1-10
찬 양 Anthem	할렐루야	글로리아	할렐루야
말 씬 Sermon	여호와와 손이 짧으냐? 김종훈목사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이재광목사
찬 송 Hymn	630장		
봉 헌 Offering	다 같 이		
환영과 소식 Announcement	인 도 자		
*찬 송 Hymn	635장		
*합심 기도 Pray Together	다 같 이		
*축 도 Benediction	김종훈목사		이재광목사
*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Please be standing)			
*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셀 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주일기도	1부 정신범전도사	2부 정수영장로	3부 김근태장로
방 송 설 교	KRB FM87.7(라디오) 매주 화요일 오전 6:30~7:00		
	Cablevision Ch.1156 (텔레비전)	주일 오후 9:00-9:30 (재방송, 월요일 오전 7:00-7:30)	
	Direct TV Ch. 2092 (텔레비전)	주일 오후 8:30-9:00 (재방송, 월요일 오전 9:30-10:00)	
	CSN(www.csnv.net)	주일 오후 8:40 본방송 (재방송, 화요일 오전 9시)	

금주의 기도제목

1. 담임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
2. 교회학교/목장/선교회/사역부서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3. 환우, 선교사, 선교지, 방송선교를 위해
4.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지켜주시고, 속히 진압되도록

지난주일 설교요약

본문: 출(Ex) 4:1-9

제목: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나?

만들어 진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기차, 비행기, 마이크). 그러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장로교 요리문답 제 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법칙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첫째,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 둘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A.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는 것입니다(출 3:10).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도 교회를 살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전파의 삶을 살라고 불러 주셨습니다.

B.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나?

하나님은 네 손에 없는 것이 무엇이나?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없는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건강, 돈, 지식, 인맥). 그러나 하나님은 평소에 가지고 다니는 것을 사용하십니다(지팡이, 물맷돌, 오병이어).

C. 네가 그것을 바쳤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4:20). 내 지식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의 지식이 됩니다. 내 물질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의 물질이 됩니다(사업, 재능, 의술, 능력). 그래서 모세의 손의 지팡이로 나일 강을 치니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지팡이를 잡고 팔을 강들과 운하와 못 위에 펴니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왔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땅의 티끌을 치니 이가 되었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드니 하늘에서 우박과 불이 떨어졌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향해 위로 내미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손을 품에 넣으니 나병이 생겼습니다. 다시 품에 넣으니 본래의 살로 돌아 왔습니다. 나병처럼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말씀에 순종하면 이웃을 치료하고 민족을 치료하는 치료사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상근 목사 예화)

교통사고로 양쪽 팔을 잃은 소녀가 한 쪽 어깨에 좀 튀어 나온 뼈로 타자를 배워 새신자와 결석자에게 편지를 써 교회에 감동의 물결을 일으킨 이야기.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나?

지난 일 년 동안 코로나바이러스로 모든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이 우리를 덮쳤습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질병으로 고통 하는 분들에게 더했습니다. 우리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나?” 는 질문에 관심을 가지고 음식배달, 선물배달, 편지 격려 등으로 돌봄 사역을 했습니다. 은혜와 감동의 물결이 위축된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 넣어 주었습니다. 작년에는 아프리카 케냐 농아들을 섬겼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 백신접종을 위해 뉴욕에 오시는 니카라과 선교사님과 그들의 가족을 섬기려 하고 있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나?

우리 손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리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손에 주신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것입니다. 우리 물맷돌이 하나님의 물맷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오병이어가 하나님의 오병이어가 될 것입니다.

목장이야기

예찬목장

코로나19의 뉴노멀 시대에 줌을 통한 온라인 목장 모임은 지난 1년간 이제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연령대가 꽤 높은 예찬 목원들도 능숙하게 접속하고 이제는 카메라 앵글과 조명도 고려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4월부터 교회 친교실에서 거리두기를 하면서 현장예배와 줌으로 동시에 목장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또한 새로운 방식으로 비대면으로 채워지지 못하던 교제의 모습을 이루게 되어 더욱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줌으로 동시 중계하는 것이 저희 예찬목장의 새로운 목장모임의 모습입니다.

함께 모여서 목장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친 후, 간단한 식사와 다과를 나누며 답소를 할 수 있게 되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 참으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도와주심을 알고 감사드리는데 예찬 목장 목원들의 성숙한 모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줄 믿습니다.



주일 찬양예배

온라인 예배 가이드

- * 핵심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던 때처럼 동일하게 예배를 준비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 1. 아침에 일찍 일어나 예배드릴 마음의 준비를 한다.
- 2. 예배 전에 씻고 아침을 먹는다. 식사하면서 예배드리지 않는다.
- 3. 교회 갈 때처럼 예배에 적절한 옷으로 갈아입는다. 옷을 대충 입으면 마음도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 4. 십일조 및 헌금을 준비한다. 교회에 우편으로 보내실 분은 우편봉투에 넣어 예배시간에 드린다. Venmo를 사용하는 분들은 예배 전에 미리 다운받아서 헌금시간에 맞추어 헌금한다. 주중에 교회에 들어서 헌금하실 분들은 부목사실에 있는 헌금함에 넣는다.
- 5. 예배시간(2부 9시 30분, 3부 11시)전에 교회 홈페이지에 가서 온라인 예배를 클릭한다.
<http://www.yalechurch.org/live-stream-sermon/>
- 6. 동시통역: 3부 예배(11시)에 동시통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Join Zoom Meeting: Meeting ID: 871 2789 7718 Passcode: 861254
<https://us02web.zoom.us/j/87127897718?pwd=dTFkMG1XN3E2MnBkUTMyUUJFdTBsZz09>
- 7. 다음을 숙지하여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
 - a. 발을 테이블에 올리지 말고, 예배당에서처럼 바르게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 b. 아이들은 부모 옆에 앉고, 예배 중에 돌아다니지 않도록 지도한다. 자녀들에게 참을성 있게 앉아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좋은 기회로 삼는다.
 - c. 설교 및 찬양 시간에 서로 질문하는 것이나 갑담은 피한다.
 - d. 인도자의 인도에 따라 동일하게 일어나고 함께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한다.
 - e. 목사님의 축도가 끝나고 예배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예배에 참여한다.
 - f. 예배 후에 주어지는 적용질문을 가지고 가족이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갖는다.

수요 예배

오후 8시 30분	F.M.A.성경공부	6월 9일
기 도	인 도 자
말 씀	김 종 훈 목 사

새벽 기도회

오전 5시 30분	김 종 훈 목 사
말 씀	

주여 새벽에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봉사위원

다음 주 봉헌/안내위원 안내

예배	봉헌위원	안내위원
1부	정신범전도사	예배부
2부	정수영장로	예배부
3부	김근태장로	예배부

교회소식

예배

- 모든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립니다.
- 예배시간 안내: 1부 오전 8:00 2부 오전 9:30 3부 오전 11:00
*온라인예배는 2부, 3부에만 있습니다. 온라인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부 예배 설교: 이재광목사(KPCA 총회장)
- 주요예배: F.M.A. 성경공부 - 요한계시록(4)

알림

1. 예배 및 헌금 안내: 뉴욕 주 성인의 백신접종률이 50%를 넘어가면서 5월 19일부터 본당에 앉을 때 6피트 거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마스크 쓰기는 계속해야 합니다. 모든 제약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예배는 지금처럼 현장예배와 온라인예배를 병행하게 됩니다. 전체가 예전처럼 교회에서 모일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1부 예배는 본당(현장)예배로 드리집니다(온라인 서비스 없음).
- 2, 3부 예배 및 CCM 예배는 본당 예배 및 온라인 서비스 제공
- 수요예배와 새벽예배는 모두에게 오픈하고, 온라인예배 병행합니다.
- 예배 전 헌금함에 헌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회 못 오시는 분은 우편 혹은 Venmo 이용

우편주소: 17 New South Rd. Hicksville, NY11801.

Pay to order: Yale Church or Yale Presbyterian Church.

Venmo: venmo@YaleKM, CCM Venmo는 @YaleCCM입니다.

- 담임목사 동정: 오늘 오후 5시 개신교수도원 10주년 감사예배 설교
- 5월 30일 당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①식사: 오늘부터 베이글 준비됩니다(이용시간: 오전 10시30분까지, 봉사위원회)
②대표기도: 7/4(주일)부터 1부:안수집사, 2부&3부:장로
③수요기도: 7/7(수요일)부터 권사
④찬양대 담임목사 기도: 오늘부터 2, 3부 예배 전 찬양대실에서
⑤교회 차량운행: 7월부터
- 5월 성경통독 및 다독자 보고: 통독 15명, 다독 113명.
*친교실에서 각 목장별로 통독 및 다독 상품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장년교육사역부)
- 니카라과선교사 백신접종 후원(\$50/구좌): 6/6, 6/13 주일 예배 헌금시
- 영/유치부 교사 임명: 강호빈집사
- 2021 예일 여름학교 안내: Yale Disciple Land Summer School 온라인만 있습니다.

대상	2021년 가을학기에 1학년~6학년이 되는 어린이들
기간	7/5-8/13(6주) 월-금, 오전 9시-12시
회비	첫 번째 자녀 \$600, 두 번째 자녀부터 \$550
접수	온라인으로만 접수 받습니다 https://yalechurch.org/elementary/

8. 강단 꽃 장식 및 사랑의 식탁과 친교(식사)기도

- 강 단 꽃: 조유경사모(생일)
- 사랑의식탁: 황병호집사(생일)

새가족

- 박소선(감사목장, 3여선교회, Commack, NY 인도:김미숙집사)
- 이현주(하늘목장, 5여선교회, Dixhills, NY)

교우동정

- 소천: 고 여승희권사(한국에서, 5/31)
- 입원: 김중예집사(코넬병원)

행사예고

- 5/13-7/24 | 픽택 직분자 교육(매주 목요일 오후 8시, 교회)

QT본문

요일	일(6)	월(7)	화(8)	수(9)	목(10)	금(11)	토(12)
본문	잠(Prov) 19:15-29	잠(Prov) 20:1-15	잠(Prov) 20:16-30	잠(Prov) 21:1-14	잠(Prov) 21:15-31	잠(Prov) 22:1-16	잠(Prov) 22:17-29

목양 칼럼

2021. 23. 이삭 줍는 영성

21세기를 접어들면서 이슈는 스피드였습니다. 속도가 없으면 모든 것이 뒤쳐진다는 긴장감을 느끼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요소를 3T 라고도 부릅니다. 그것은 이동통신의 발달, 교통수단의 발달, 그리고 빈번한 여행(Tele-communication, Transportation, Tourism) 등으로 꼽습니다. 인류 역사는 앞으로 얼마나 더 빨리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고, 인공지능(AI)의 역할이 사람을 대신할 시대로 접어들 것을 미래학자들은 내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않았던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것은 코로나바이러스라고 하는 세계 전염병이었습니다. Covid-19은 일상생활을 멈추게 했습니다. 만남을 멈추게 했고, 일터를 멈추게 했습니다. 많은 면에서 인류에게 위협을 주었습니다. 인간 생명의 위협, 경제적 위협, 심리적 불안, 단절된 사회적 관계로 인한 고립감 등을 주었습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멈춤은 어쩌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요소였는지 모릅니다. 멈춤은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과학문명과 함께 퍼지고 있는 인간의 내면의 탐욕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변종 우상숭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세계 도처에서 정치, 경제, 교육, 사회 전 분야에서 무신론의 바벨탑을 쌓게 했습니다.

[룻 이야기]

이삭 줍는 룻을 생각해 봅시다. 모압여인으로 이스라엘에 나그네로 온 사람입니다. 남편이 죽고 홀로된 과부입니다. 보호자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구속의 역사의 중심부에 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1. 현재 고난에서 미래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서면 누구나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날을 걱정하면 그 무게에 압사당합니다. 그러나 버티면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됩니다. 애굽에 팔려간 요셉도 그랬습니다. 팔려간 그 자리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자리였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니던 다윗도 그랬습니다. 쫓겨 다니던 곳이 후에 왕이 된 자리였습니다. 이삭 줍던 룻은 나중에 그 발주인이 되었습니다.

2. 무엇으로 버틸 것입니까?

1) 신앙의 본질을 붙잡아야 합니다.

룻은 모압에서 섬기던 그모스 신을 버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부르짖는 자를 도우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룻 1:16-17). 신앙이 회복되면 인생이 회복됩니다.

2) 인자함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삭을 주으며 시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그가 베푼 인자함으로 룻은 발주인인 보아스의 인자함을 받습니다. "사람은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잠 19:22). 보잘것없는 배려가 은혜 받는 근거가 됩니다.

개인주의는 자기를 위해 공동체를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공동체 의식은 공동체를 위해 자기를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흉년 때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았던 오르바는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인자를 베푼 룻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삭 줍는 시대는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인자함으로 회복하는 기회입니다. 이런 회복은 변두리 사람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줍니다. 지금은 이삭을 줍는 시대입니다.